

트레-치메의 산중 예배당

Cappella degli Alpini Tre-Cime



해발 2333M 알프스 산중의 작은 교회. 지키는 이도 없고 화려한 교회 장식은 커녕 초라한 흰색 회벽의 교회가 무척 쓸쓸해 보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목나무가 길가를 지키고 있듯이 묵묵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돌로마이트의 대표 봉우리 트레-치메의 일출을 찍기 위해 날이 밝기전에 출발하여 동이 뜨기 한시간 전쯤 봉우리 초입에

도착했다. 돌로마이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니스에서 차로 두세시간 거리의 알프스산맥 중에 있는 산이다. 그 여러 봉우리 중 트레-치메3봉우리는 해발 2999미터의 웅대한 바위산 자태로 이곳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이며 일출로 유명한 곳이다. 이 봉우리에 도달하기전 아론조 대피소 (Rifugio Auronzo hut)를 거치게 되는데,

- ◀ 장엄한 돌로마이트의 트레-치메 전경
- ◀◀ 이탈리아 군인들의 희생을 위해 지어진 산중 교회

대피소에서 10여분 더 올라가면 전망대 같은 좁은 평지에 이 소담한 교회가 있다. 이 작은 교회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전선에 희생된 많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이탈리아 군인들이 지었다. 특별한 건축적 의미 또는 예술적 특징은 없지만 돌로마이트의 장엄한 전경을 내려다 보며 엄청난 비극을 기억하는 역사적 의미만으로도 이 작은 교회는 특별하지 않을수 없었다. 때는 1916년 12월 13일, 제1차 세계대전 중 헝가리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군과 알프스 지역 전선에서 전쟁 중이던 이탈리아 군대가 이른바 '하얀 금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에 만 명이 넘는 병사가 돌로마이트 산맥의 눈사태에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트레-치메의 의 장엄한 배경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 중 하나에 위치한 이 작고 사랑스러운 작은 교회는 이날 희생된 이탈리아 군인들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교회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 강대국들 간의 충돌로 일어난 전쟁으로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날 때 까지 총 2천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는 참혹한 전쟁으로 이탈리아 또한 219만명이 전쟁으로 사망하였다.

교회는 산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크지 않은 십자가 고상만 여행객을 맞이 할뿐 아무런 장식도 없지만 무명용사의 넋의 무게는 무거웠다. 해발 2300m의 산중턱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이 교회는 사정없이 불어치는 높은 산중의 날씨를 100년이 넘도록 오늘도 버텨내고 있었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연중
제 3 주일
2024년
01월 2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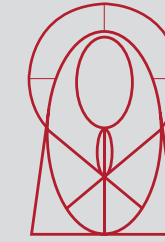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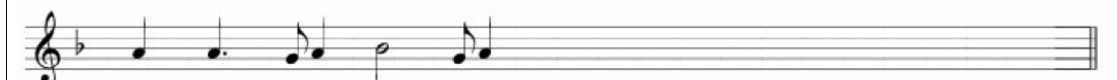
OUR LADY OF MERCY PARISH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두초 디 부오닌세냐, 1311, 워싱턴 국립미술관, 미국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요나 예언서3,1-5.10
- # 화답송 시편 25(24),4-5 7ㄴ,6과 7ㄴㄷ,8-9(◎ 4-7)



후렴: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29-31
- #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마르코 복음1,14-20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가족
 - 길정숙(루시아) - 가족
 - 허윤(에디) - 육 글라라
 - 최상옥(마리아) - 김종화(아가다)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 곽 엘리자벳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김종화(아가다) - 대자
 - 이옥주(테레사) - 육 글라라
 - 윤 넬리 - 가족
 - 박정훈(베드로), 황선주(요셉피나) - 윤준희(안드레아), 구윤미(올리아)
 - 구용호(바오로), 조경희(세실리아) - 윤준희(안드레아), 구윤미(올리아)
 - 이종권(베드로)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14 주일 헌금 (119명)	\$1,058
2차헌금 (유틸리티)	\$282
교무금	\$600
이호용(1) 황태진(1-2) 김삼식(1-2) 임문수(1)	
감사헌금	\$500
김경희(\$50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올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아나
 - 방진숙(테레사) 송희수(글라라)

- 제 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5시 - 3월 17일(일) 오후 5시 30분, (3박 4일)
 -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 강사: 김정경 실바노 신부(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미 동북부 사제단
 - 신청 마감: 2024년 2월 29일(수)
 - 참가비: \$390/1인 (숙식제공)
 - 신청문의: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kaccrs.ne@gmail.com

- 레지오 마리에 교육협의회 캐나다(몬트리올, 퀘벡) 성지순례**
-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7일(토)
 - 인원: 선착순 35명
 - 참가 자격: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
 - 신청 마감: 2024년 2월 25일까지
 - 지도 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800 (2박 3일 전용차량, 호텔, 식사 포함)
 - 문의: 꾸리아 단장 채미영(테레사)

- 2차 헌금**
- 1월 21일 :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교구내 초등-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학비 지원)

-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8일(주일) 한국어 미사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2월 4일(주일)은 설날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설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1/21 올드브릿지 • 2월(미정):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 오늘 미사 후 올드브릿지 구역에서 친교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음식과 함께 교우분들과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21 심윤조, 박화성 • 1/28 전광수, 전옥주

-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 소분과 단체장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가톨릭 교회 평신도
 - 접수마감: 2024년 2월 16일
 - 문의: 사무실

-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 접수마감: 2024년 1월 31일
 - 문의: 사무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쉼겨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요나 예언서3,1-5.10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웃을 입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29-31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 복음1,14-20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연중 제 3주일 (01/21/24) 가스펠 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향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